

# 3주 내내 출근길 음주 단속... “너무하네”

장흥경찰 5월 주요 길목 단속...농번기 이동 지체  
속취 우려 회식도 ‘뚝’...불경기 음식점 매출 타격

장흥경찰이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속취)을 한 달 가까이 지속해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아닌 농촌지역에서 농번기로 바뀐 시기임에도 장기간 출근길 음주단속에 나서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선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12일 장흥경찰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2주일 동안 아침 출근 시간대(오전 8시~9시)에 장흥군청 앞과 주요 유관기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I·C 등 지역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했다. 장흥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지

시로 속취 음주단속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흥경찰 자체적으로 같은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출근길 음주단속을 이어간데다, 인근 타지역 경찰서들은 대부분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출근길 음주단속을 같은 기간 총 2~3회만 했다는 점에서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흥가 등이 밀집된 광주 등 도심지역에서 아침 출근시간대 월 1~2회 정도 음주단속을 하는 사례는 있지만, 농촌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한 달 내내 출근길 음주단속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단속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단 한차례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을 한 것을 놓고도 ‘행정기관의 신뢰도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장흥경찰은 이 같은 단속으로 올 들어 5월 말 현재 안전미착용만 전년 600건보다 무려 2배 많은 1200건을 적발했으며, 음주운전도 전년보다 10여건 많은 110건을 단속했다. 이를 놓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경찰이 엄중한 음주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막는 데는 동참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을 가로막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흥지역 음식점 등에서는 경찰의 출근길 단속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 소비경기마저 위축됐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흥읍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아침 출근길 단속이 계속된 이후 혹시나 속취 음주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저러 손님들이 끊겼다”면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져 저녁시간대에 군청 공무원의 회식 등을 구성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장흥경찰과 장흥군청간 소통 부족에 따른 내부적 갈등으로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면서 표적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루머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흥경찰 관계자는 “을 들어 전남지역에서 교통 사망사고와 공공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행위가 늘어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5월을 가정안전의 달을 보내자는 방침을 내려 집중적인 지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새 소득작물 ‘애플망고·레드향’

郡, 기후변화 대처 육성작물 선정...내년부터 보급

강진군이 미래 유망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와 레드향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2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실증재배 시험을 통해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8종을 선발하고, 시장성이 우수한 애플망고와 레드향을 육성작물로 선정해 농가시범재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애플망고와 레드향을 내년부터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애플망고는 제주도에서 처음 보급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내륙에서도 재배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형하우스 신축과 보온시설이 필요한데다 식재후 3년 이상 지나야 수확이 된다는 점에서 면적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 2014년 투자 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

사업에 나선 끝에 지역 적응성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내 유흥 시설하우스를 소유한 농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귤의 조합으로 만든 품종으로 수년전부터 고급 과일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강진에는 지난 2014년 도입돼 2농가 0.5ha에서 재배중이며 올 겨울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통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은 겨울철 기후가 따뜻하지만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적지 않아 아열대 과수 작목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 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군 보건소 ‘모기와의 전쟁’

방역단·모기발생 통보제 운영

강진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11개 읍·면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모기발생분석 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모기발생 통보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보제는 중남미 브라질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흰줄숲모기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빨간집모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군은 이번달부터 모기를 유인해 포획하는 ‘유문등’을 주택가와 축사에 설치·운영하고, 모기 활동량 및 주민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해 군민에게 알려 모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율적 모기예방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흥 사랑해요~” 장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생 50여명이 최근 직접 만든 장흥사랑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장흥군수실을 방문해 김성 장흥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군청을 견학했다. <장흥군 제공>

또 모기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을 대비해 방역기능반 및 자율방역단을 주 2회 이상 가동하고, 모기발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취약시설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는 등 모기와의 전면전에 나서 계획이다. 송나운 강진군 예방의약팀장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각종 감염병 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시 밝은색의 긴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적게 하는 등 주민 스스로 모기회피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 ‘장흥 표고’ 2년 연속 홍콩 수출길

35톤 150만달러 계약...내년 5월까지 매달 선적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원목 표고버섯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최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원목 표고버섯 3.5톤을 실은 컨테이너가 홍콩 수출을 위해 부산항으로 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표고버섯은 14만 달러(1억6000만원) 규모다. 표고버섯은 부산항에서 선적돼 홍콩으

로 입항되며, 내년 5월까지 매달 20피트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 총 35톤 150만달러(17억원) 규모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난해 11월 처음 장흥 원목 표고버섯을 수입한 뒤 현지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임맛이 까다로운 홍콩 소비자들에게 원목 표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 애초 예상보다 판매물량이 2배 이상 늘었으며, 품목도 3배 이상 늘었다.

정남진장흥농협 농산물유통센터(센터장 김재만)는 전남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수차례 홍콩식품박람회 등에 출품해 장흥표고버섯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장흥표고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특히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참나무 원목재배하고 있는 장흥표고버섯 현장과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는 정남진장흥농협 APC의 선별장 모습을 견학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추진하기도 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이번 수출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 대만 등에도 추가적인 수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영동·평리마을 숙원 풀었다

강진군, 79억원 투입 하수도 정비...2018년 완공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와 군동면 평리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동·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오는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71억원 규모였던 이번 사업은 강진군이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국비 55억원과 군비 24억원 등 총사업비 79억원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칠량면 영동리 영동·강동·영풍 마을에 오수관로 15.7km, 220톤 규모 처리장이 설치된다. 또 군동면 평리 마을에 오수관로 8.4km,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들어선다.

강진군은 영동·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정류되지 않고 방류되는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오연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처리장 건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특히 사업장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철저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원 발생 등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평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모텔 호텔급 숙박 업소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평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회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좋은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